

2026 년 봄 학기

전시간 훈련을 위한 메시지 개요

전체 주제:

바울의 서신들 안에 있는 진리의 중점들 —

데살로니가전후서

메시지 4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를 위해 하나님과 하나님의 부름에 합당하게 행함

성경: 살전 2:12, 빌 3:13-14, 롬 8:4, 엡 4:1-4, 15-16, 20-24, 5:2, 8, 18

[살전 2:12] 그것은 그분 자신의 왕국과 영광 안으로 여러분을 부르시는 하나님께 여러분이 합당하게 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빌 3:13-14] 형제님들, 나는 아직 내가 붙잡았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나는 오직 한 가지 일만을 합니다. 즉 뒤에 있는 것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을 향하여 힘을 다해 수고함으로써, ⁽¹⁴⁾ 나에게 주실 상을 위하여 쫓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상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를 위로 부르셨습니다.

[롬 8:4] 육체를 따라 행하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로운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하신 것입니다.

[엡 4:1-4] 그러므로 주님 안에 갇힌 사람인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름을 받았으니 그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십시오. ⁽²⁾ 모든 일에 겸허하고 온유함으로 또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를 짊어지며 ⁽³⁾ 화평의 때는 따로 그 영의 하나를 힘써 지키십시오. ⁽⁴⁾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십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부름을 받았을 때 한 소망 안에서 부름을 받았습시다.

[엡 4:15-16] 오직 우리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붙잡고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 곧 머리이신 분 안으로 자라야 합니다. ⁽¹⁶⁾ 그분으로부터 온몸은 그 풍성한 공급을 해 주는 각 마디를 통하여, 그리고 각 지체가 분량에 따라 기능을 발휘하는 것을 통하여 함께 결합되고 함께 짜입니다. 그래서 몸이 자람으로써 사랑 안에서 스스로 건축되는 것입니다.

[엡 4:20-24]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²¹⁾ 여러분이 참으로 그리스도에게서 들었고 예수님 안에 있는 실재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면, ⁽²²⁾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을 따르는 옛사람, 곧 그 속이는 것의 욕정에 따라 썩어 없어져 가는 옛사람을 벗어 버린 것이며, ⁽²³⁾ 또한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되어 ⁽²⁴⁾ 새사람, 곧 하나님을 따라 그 실재의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사람을 입은 것입니다.

[엡 5:2]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시어, 달콤한 향기가 나는 예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것처럼, 여러분도 사랑 안에서 행하십시오.

[엡 5:8]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들답게 행하십시오.

[엡 5:18] 술 취하지 마십시오. 술 취하는 것은 사람을 방탕하게 합니다. 다만 영 안에서 충만해지십시오.

I. 그리스도 안의 믿는 이들로써,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로써 우리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해야 한다 — 살전 2:12.

[살전 2:12] 그것은 그분 자신의 왕국과 영광 안으로 여러분을 부르시는 하나님께 여러분이 합당하게 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 A.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은 1장 1절에 대한 설명이다. 교회가 실질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려면 믿는 이들이 반드시 하나님께 합당히 행해야 한다.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는 것은 사실상 하나님을 사는 것을 의미한다 — 엡 4:1, 17, 5:1-2, 8, 고후 5:7, 요일 1:7, 2:6, 빌 1:20-21 상.
 [엡 4:1] 그러므로 주님 안에 갇힌 사람인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름을 받았으니 그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십시오.
 [엡 4:17]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님 안에서 증언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방인들이 헛된 생각을 따라 행하는 것처럼 행하지 마십시오.
 [엡 5:1-2]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²⁾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시어, 달콤한 향기가 나는 예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것처럼, 여러분도 사랑 안에서 행하십시오.
 [엡 5:8]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들답게 행하십시오.
 [고후 5:7]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일 1:7]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안에 계신 것같이 우리도 빛 안에서 행하면, 우리는 서로 교통을 갖게 되고, 그분의 아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온갖 죄에서 깨끗하게 합니다.
 [요일 2:6] 그분 안에 거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또한 그분께서 행하신 대로 직접 행해야 합니다.
 [빌 1:20-21]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어떤 일에서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항상 그러하였듯이 지금도 매사에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확대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²¹⁾ 왜냐하면 나에게 있어서 삶은 그리스도이고, 나에게 있어서 죽음은 유익이기 때문입니다.
1. 우리의 일상생활은 사실상 하나님 자신이어야 한다. 하나님께 합당한 분은 하나님 자신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는 것, 곧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이다 — 고전 10:31.
 [고전 10:31] 그러므로 여러분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2. 하나님의 경륜은 생명이신 하나님을 소유하고 하나님을 사는 문제이다.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하나님의 의도는 그분의 요소와 그분의 실질과 그분의 본성의 성분들을 우리의 존재 안에 분배하시어 우리가 그분을 살도록 하는 것이다 — 딤후 1:4, 엡 3:16-19, 빌 1:20-21 상.
 [딤후 1:4] 또 꾸며 낸 이야기와 끝없는 족보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보다는 오히려 의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엡 3:16-19]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분의 영을 통하여 능력으로 여러분을 속사람에 이르도록 강하게 해 주시고, ⁽¹⁷⁾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거처를 정하시게 하시며, 여러분이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터를 잡아서 ⁽¹⁸⁾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는 충분한 역량과 ⁽¹⁹⁾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이 있게 하시어, 하나님의 모든 충만에 이르도록 여러분이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빌 1:20-21]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어떤 일에서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항상 그러하였듯이 지금도 매사에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확대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²¹⁾ 왜냐하면 나에게 있어서 삶은 그리스도이고, 나에게 있어서 죽음은 유익이기 때문입니다.
 3. 하나님께서 그분의 경륜 안에서 갖고 계신 목표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구속하신 백성인 우리가 내적으로 그분의 생명과 본성을 소유하고 외적으로 그분의 형상과 모양을 지니는 것이다 — 창 1:26, 2:9.
 [창 1:26]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듭시다. 그리고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 위를 기어 다니는 온갖 기는 것을 통치하게 합시다.”

[창 2:9] 여호와 하나님은 그 땅에 보기 즐겁고 먹기 좋은 온갖 나무를 자라게 하셨고, 동산 한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의 지식나무도 자라게 하셨다.

4. 하나님은 신성한 생명 안에서, 신성한 생명의 법에 의해 우리 안으로 일해 넣어지실 것이며, 우리는 신격에서가 아니라 생명과 본성에서 그분을 살고, 그분으로 조성될 것이다. 결국 우리는 단체적인 한 실체, 곧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그분과 하나 되고 그분의 단체적인 표현을 위해 그분을 살 것이다 — 롬 8:2, 6, 10-11, 29, 엡 4:4-6.

[롬 8:2] 왜냐하면 생명의 영의 법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였기 때문입니다.

[롬 8:6] 육체에 둔 생각은 죽음이지만, 영에 둔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롬 8:10-11]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면,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 때문에 생명입니다. ⁽¹¹⁾ 또한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영을 통하여 여러분의 죽을 몸에도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롬 8:29]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사람들을 그분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형상을 이루게 하시려고 또한 미리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분의 아들을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만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엡 4:4-6]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십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부름을 받았을 때 한 소망 안에서 부름을 받았습시다. ⁽⁵⁾ 주님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입니다. ⁽⁶⁾ 하나님도 한 분이시며, 모든 사람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 위에 계시고, 모든 사람을 통과하여 계시고, 모든 사람 안에 계십니다.

5. 하나님을 삶으로써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것은 하나님-사람의 삶을 사는 것이다. 하나님-사람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을 통하여 하는 신성하고 비밀한 사람들이다 — 고전 10:31, 골 3:17.

[고전 10:31] 그러므로 여러분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골 3:17]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모든 것을 주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하고,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 B.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는 것은 연합된 영에 따라 행하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영 안에 계신 그 영에 따라 살고 움직이고 처신하고 모든 것을 하는 것이다 — 롬 8:4, 갈 5:16, 25.

[롬 8:4] 육체를 따라 행하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로운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하신 것입니다.

[갈 5:16] 내가 말합니다. 그 영을 따라 행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결코 육체의 욕망을 채우지 않을 것입니다.

[갈 5:25] 우리가 그 영을 따라 산다면, 또한 그 영을 따라 행합시다.

1. 생명의 감각에 순종하는 것과 기름 바름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것과 영을 따라 행하는 것은 한 가지의 세 방면이다 — 롬 8:4, 요일 2:27.

[롬 8:4] 육체를 따라 행하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로운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하신 것입니다.

[롬 8:6] 육체에 둔 생각은 죽음이지만, 영에 둔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요일 2:27] 여러분으로 말하면, 그분의 기름바름이 여러분 안에 거하니, 아무도 여러분을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의 기름바름이 모든 것에 관하여 여러분을 가르칩니다. 이 기름바름은 참되고 거짓되지 않으니, 여러분에게 가르쳐 준 대로 그분 안에 거하십시오.

2. 우리가 연합된 영을 따라 행할 때 우리의 육체와 자아와 타고난 생명은 그 지위와 기능을 잃게 된다 — 갈 5:16, 마 16:24, 고전 2:11-15.

[갈 5:16] 내가 말합니다. 그 영을 따라 행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결코 육체의 욕망을 채우지 않을 것입니다.

[마 16:24]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십시오.

[고전 2:11-15]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사람의 영이 아니면 누가 알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¹²⁾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신 그 영을 받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우리가 알도록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¹³⁾ 우리는 또한 이것들을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말하지 않고, 그 영께서 가르치신 말씀으로 말합니다.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말씀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¹⁴⁾ 그러나 혼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들이 그 사람에게는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또 그는 그런 일들을 알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들은 영적으로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¹⁵⁾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지만, 그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습니다.

3. 우리가 연합된 영을 따라 행할 때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으신 그 영은 우리 안에서 완전한 입지를 얻으셔서 그분의 단체적인 표현을 위해 우리를 그분과 하나 되게 하신다 — 엡 3:16-21.

[엡 3:16-21]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분의 영을 통하여 능력으로 여러분을 속사람에 이르도록 강하게 해 주시고, ⁽¹⁷⁾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거처를 정하시게 하시며, 여러분이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터를 잡아서 ⁽¹⁸⁾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는 충분한 역량과 ⁽¹⁹⁾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이 있게 하시어, 하나님의 모든 충만에 이르도록 여러분이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²⁰⁾ 이제 우리 안에서 운행하는 능력에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더욱 넘치도록 해 주실 수 있으신 하나님께 ⁽²¹⁾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히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4. 우리는 연합된 영을 따라 행함으로 신성한 삼일성의 신성한 분배의 ‘소나기’ 아래 지켜진다. 결국 성경은 우리에게 오직 한 가지, 곧 연합된 영을 따라 행하는 것을 요구한다 — 겔 34:26, 롬 8:4, 11.

[겔 34:26] 내가 그들과 내 언덕 주변을 복이 되게 하고 제때에 소나기를 내리리니, 복된 소나기가 내릴 것이다.

[롬 8:4] 육체를 따라 행하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로운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하신 것입니다.

[롬 8:11] 또한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영을 통하여 여러분의 죽을 몸에도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5. 연합된 영을 따라 행하는 것은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 존재에 침투하실 때까지 우리를 채우시고 적시시게 하여, 그분께서 우리를 통하여 단체적인 방식으로,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되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표현되시도록 하는 것이다 — 엡 3:16-21, 4:4-6, 16, 골 1:27, 2:19, 3:4, 10-11, 계 21:2, 10-11.

[엡 3:16-21]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분의 영을 통하여 능력으로 여러분을 속사람에 이르도록 강하게 해 주시고, ⁽¹⁷⁾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거처를 정하시게 하시며, 여러분이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터를 잡아서 ⁽¹⁸⁾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는 충분한 역량과 ⁽¹⁹⁾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이 있게 하시어, 하나님의 모든 충만에 이르도록 여러분이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²⁰⁾ 이제 우리 안에서 운행하는 능력에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더욱 넘치도록 해 주실 수 있으신 하나님께 ⁽²¹⁾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히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엡 4:4-6]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십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부름을 받았을 때 한 소망 안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⁵⁾ 주님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입니다. ⁽⁶⁾ 하나님도 한 분이시며, 모든 사람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 위에 계시고, 모든 사람을 통과하여 계시고, 모든 사람 안에 계십니다.

[엡 4:16] 그분으로부터 온몸은 그 풍성한 공급을 해 주는 각 마디를 통하여, 그리고 각 지체가 분량에 따라 기능을 발휘하는 것을 통하여 함께 결합되고 함께 짜입니다. 그래서 몸이 자람으로써 사랑 안에서 스스로 건축되는 것입니다.

[골 1:27] 하나님은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들 가운데서 얼마나 풍성한지를 성도들에게 알리기 원하셨습니다. 이 비밀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인데,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골 2:19] 머리를 붙들지 않습니다. 온몸은 마디와 힘줄을 통하여 머리로부터 풍성하게 공급을 받고 함께 짜여, 하나님께서 자라심으로 자라는 것입니다.

[골 3:4]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그분께서 나타나실 그대에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골 3:10-11] 새사람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이 새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에 따라 온전한 지식에 이르도록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¹¹⁾ 거기에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례자와 무할례자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노예나, 자유인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이시며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계 21:2]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하나님에게서 내려오는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계 21:10-11] 내가 영 안에 있는데, 천사가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하늘에서 하나님에게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나에게 보여 주었습니다. ⁽¹¹⁾ 그 성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성의 빛은 가장 귀한 보석 같았고 수정처럼 맑은 벽옥 같았습니다.

II. 하나님께서 그분의 최선의 회복 안에서 갖고 계신 갈망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를 위해 그분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다 — 엡 4:1-4.

[엡 4:1-4] 그러므로 주님 안에 갇힌 사람인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름을 받았으니 그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십시오. ⁽²⁾ 모든 일에 겸허하고 온유함으로 또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를 짊어지며 ⁽³⁾ 화평의 때는 띠로 그 영의 하나를 힘써 지키십시오. ⁽⁴⁾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십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부름을 받았을 때 한 소망 안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A.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행함의 첫째 항목은 신성한 속성들에 의해, 신성한 속성들로 강화된 변화된 인간 미덕들로,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인 그 영의 하나를 힘써 지키는 것이다 — 엡 4:2-4.

[엡 4:2-4] 모든 일에 겸허하고 온유함으로 또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를 짊어지며 ⁽³⁾ 화평의 때는 띠로 그 영의 하나를 힘써 지키십시오. ⁽⁴⁾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십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부름을 받았을 때 한 소망 안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1.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극도로 추구하고 얻는 단체적인 생활을 함으로, 그리스도의 부활 능력에 의해 그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확대하는 단체적인 하나님-사람의 생활은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로서, 교회 시대인 이 시대를 마감하고 그리스도를 다시 모셔와 왕국 시대 안에서 이 땅을 차지하시고 점령하시며 다스리시게 한다 — 빌 1:19-21 상, 3:10-14, 갈 2:20, 계 19:7-9, 20:6.

[빌 1:19-21] 왜냐하면 여러분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넘치는 공급으로, 이러한 일이 결국에는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을 나는 알기 때문입니다. ⁽²⁰⁾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어떤 일에서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항상 그러하였듯이 지금도 매사에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확대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²¹⁾ 왜냐하면 나에게 있어서 삶은 그리스도이고, 나에게 있어서 죽음은 유익이기 때문입니다.

[빌 3:10-14] 나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 능력과 그분의 고난의 교통을 알고, 그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루어, ⁽¹¹⁾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뛰어난 부활에 이르고자 합니다. ⁽¹²⁾ 내가 이미 획득하였다는 것도 아니고, 이미 온전하게 되었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으셨기 때문에, 나 또한 그리스도를 붙잡으려고 힘을 다하여 추구할 뿐입니다. ⁽¹³⁾ 형제님들, 나는 아직 내가 붙잡았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나는 오직 한 가지 일만을 합니다. 즉 뒤에 있는 것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을 향하여 힘을 다해 수고함으로써, ⁽¹⁴⁾ 나에게 주실 상을 위하여 쫓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상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를 위로 부르셨습니다.

[갈 2:20]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이제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생명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생명입니다.

[계 19:7-9] 우리가 기뻐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립시다. 왜냐하면 어린양의 결혼 날이 다가왔고, 그분의 아내도 자신을 준비하였기 때문입니다. ⁽⁸⁾ 신부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게 되었는데, 그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의입니다. ⁽⁹⁾ 그 천사가 또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기록하십시오. 어린양의 결혼 잔치에 초대받은 그들이 복이 있습니다.” 그는 또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입니다.”

[계 20:6]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복이 있고 거룩합니다. 둘째 죽음은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 천 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으로서 다스릴 것입니다.

2.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성도들에게 간곡히 권면할 때,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님께 갇힌 사람이자 주님 안에 갇힌 사람이라는 신분으로 말했다 — 엡 3:1, 4:1.

[엡 3:1] 이런 이유로, 이방인 여러분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님께 갇힌 사람인 나 바울이 말합니다.

[엡 4:1] 그러므로 주님 안에 갇힌 사람인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름을 받았으니 그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십시오.

a. 하나님의 모든 청지기, 하나님의 풍성을 공급하는 모든 사역자, 그리스도의 신실한 모든 연인들은 조만간 그리스도에 의해 갇힐 뿐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갇힐 것이다. 그분을 사랑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그분 안에 있게 되며, 결국 그분은 우리가 그분을 극도로 누리도록 우리의 감옥이 되실 것이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게 된다.

b. 우리는 자유를 가질수록 더 눈멀게 되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감옥이 되신다면 우리의 눈은 열려 하늘에 속한 이상을 보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최고의 계시를 받게 될 것이다 — 엡 3:9, 행 26:19.

[엡 3:9]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영원부터 감추어져 있던 비밀의 경륜이 무엇인지를 모든 사람에게 밝히게 하시어,

[행 26:19] 아그립바왕이시여, 그러므로 내가 하늘에 속한 그 이상을 거스르지 않고,

3. 영광스럽게 되신 예수님의 영 안에는 예수님의 변화된 인성이 있다. 한 몸을 위해 한 영을 마시고 흘러나가게 하는 것은 사람 예수님의 영을 마시고 흘러나가게 하는 것이고, 사랑 안에서 서로를 짊어지게 하는 겸허와 온유와 오래 참음 등의, 신성으로 풍성하게 된 인간 미덕들을 가진 예수님의 인성을 마시고 흘러나가게 하는 것이다 — 요 7:37-39 상, 고전 12:13, 행 16:7, 엡 4:2-3.

[요 7:37-39] 명절 끝 날, 곧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시어 외치셨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에게로 와서 마시십시오. ⁽³⁸⁾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에서 말한 대로 그의 가장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올 것입니다.” ⁽³⁹⁾ 이것은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받을 그 영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스럽게 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영께서 아직 계시지 않았다.

[고전 12:13]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노예나 자유인이나 모두 한 영 안에서 한 몸 안으로 침례 받았고, 또 모두 한 영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행 16:7] 무시아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였지만, 예수님의 영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

[엡 4:2-3] 모든 일에 겸허하고 온유함으로 또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를 짊어지며 ⁽³⁾ 화평의 때는 따로 그 영의 하나를 힘써 지키십시오.

B. 하나님의 부름에 합당한 행함의 둘째 항목은 우리가 모든 일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자라는 것이다 — 엡 4:15-16.

[엡 4:15-16] 오직 우리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붙잡고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 곧 머리이신 분 안으로 자라야 합니다. ⁽¹⁶⁾ 그분으로부터 온몸은 그 풍성한 공급을 해 주는 각 마디를 통하여, 그리고 각 지체가 분량에 따라 기능을 발휘하는 것을 통하여 함께 결합되고 함께 짜입니다. 그래서 몸이 자람으로써 사랑 안에서 스스로 건축되는 것입니다.

1.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을 위해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자라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한 새사람을 산출하기 위한 모든 것을 포함한 우주적인 대체물로서 누려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만’을 보아야 한다 — 엡 4:15-16, 막 9:7-8.

[엡 4:15-16] 오직 우리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붙잡고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 곧 머리이신 분 안으로 자라야 합니다. ⁽¹⁶⁾ 그분으로부터 온몸은 그 풍성한 공급을 해 주는 각 마디를 통하여, 그리고 각 지체가 분량에 따라 기능을 발휘하는 것을 통하여 함께 결합되고 함께 짜입니다. 그래서 몸이 자람으로써 사랑 안에서 스스로 건축되는 것입니다.

[막 9:7-8] 그때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음성이 들려왔다. “그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⁸⁾ 그들이 즉시로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그들과 함께 계셨다.

a. 하나님은 왕궁의 청지기였던 썸나를 해고하셨고(사 22:15-19), 그리스도의 예표(사 22:20-24, 계 3:7)인 엘리야김으로 대체하셨다. 하나님은 그분의 집의 모든 그릇을 그리스도로 대체하시기 위해 그들을 해고하셨다(사 22:25).

[사 22:15-24]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 “일어나서 청지기에게 / 곧 왕궁을 관리하는 썸나에게 가서 말하여라. ⁽¹⁶⁾ ‘너는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여기 누가 있기에 / 너를 위하여 여기에 무덤을 파 두었느냐? / 높은 곳에 무덤을 파 둔 사람처럼 / 바위에 자기를 위한 안식처를 깎아 둔 사람처럼 말이다. ⁽¹⁷⁾ 용사야, 여호와께서 곧 너를 멀리 내던지신다. / 너를 단단히 묶으시고 ⁽¹⁸⁾ 너를 푹푹 말아 / 공처럼 넓은 땅으로 내던지시리라. / 거기서 네가 죽고, 거기서 네 영광의 병거들도 / 네 주인의 집의 수치가 되리라. ⁽¹⁹⁾ 나는 너를 네 직위에서 내쫓고 / 네 자리에서 끌어내리리라.’” ⁽²⁰⁾ “그날에 / 나는 힐기야의 아들인 나의 종 엘리야김을 불러 ⁽²¹⁾ 너의 관복을 그에게 입히고 / 너의 허리띠를 그에게 매어 주며 / 너의 통치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 그가 예루살렘 주민들과 / 유다 집의 아버지가 되리라. ⁽²²⁾ 그리고 다윗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 위에 두리니 / 그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 그가 닫으면 열 사람이 없으리라. ⁽²³⁾ 단단한 곳에 박힌 못처럼 나는 그를 박으리니 / 그가 자기 아버지의 집을 위해 영광의 보좌가 되리라. ⁽²⁴⁾ 그러면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곧 자식과 자손, 대접에서 온갖 향아리에 이르기까지 온갖 작은 그릇이 그의 위에 걸릴 것이다.

[계 3:7] 빌라델비아에 있는 교회의 전달자에게 이렇게 편지하여라. ‘거룩한 이, 참된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 열면 닫을 수 없고 닫으면 열 수 없도록 하는 이가 이렇게 말한다.

[사 22:25] 만군의 여호와의 선포이다. ‘그날에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빠지고 심지어 잘리며 떨어질 것이다. 그러면 그 위에 걸려 있던 것도 깨질 것이다.’ 이는 여호와가 말하였기 때문이다.”

b.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아닌 모든 것이나 그리스도가 아닌 모든 사람을 ‘해고하신다’. 하나님은 그분의 구약 경륜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 대체하셨다 — 막 1:1-8, 마 17:3-5, 골 2:16-17, 히 10:5-10, 11:5-6, 비교 사 22:20-25.

[막 1:1-8]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 ⁽²⁾ 신언자 이사야의 글에 “ ‘보아라, 내가 나의 전달자를 너의 면전에 보내니, 그가 너의 길을 예비할 것이다.’라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³⁾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의 음성이라. ‘주님의 길을 예비하여라. 그분의 작은 길들을 곧게 하여라.’”라고 기록되어 있는 대로, ⁽⁴⁾ 요한이 나아와서 광야에서 침례 주며, 죄들이 용서받을 수 있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⁵⁾ 유대 온 지역과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이 그에게 나아가, 자기 죄들을 자백하고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았다. ⁽⁶⁾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야생 꿀을 먹었다. ⁽⁷⁾ 그는 이렇게 전파하였다.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분께서 내 뒤에 오시는데, 나는 몸을 굽혀 그분의 신발 끈을 풀 자격도 없습니다. ⁽⁸⁾ 나는 여러분을 물속에 침례 주었으나, 그분은 직접 여러분을 성령 안에 침례 주실 것입니다.” [마 17:3-5] 보아라,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말하고 있는 것이 그들에게 보였다. ⁽⁴⁾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드렸다. “주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에다 장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습니다.” ⁽⁵⁾ 그가 아직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보아라,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음성이 들려왔다. “그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를 기쁘게 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골 2:16-17] 그러므로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나 명절이나 초하룻날이나 안식일에 관하여, 아무도 여러분을 판단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¹⁷⁾ 이런 것들은 장래 일들의 그림자이며, 그 실체는 그리스도께 속한 것입니다.

[히 10:5-10]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희생 제물과 예물을 원하지 않으시고, 저를 위하여 한 몸을 준비하셨습니다. ⁽⁶⁾ 주님은 번제물과 속죄제물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⁷⁾ 그때 저는 아뢰었습니다. ‘보십시오, (두루마리 책에 저에 관하여 기록된 대로) 제가 주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오, 하나님!’ ” ⁽⁸⁾ 위의 말씀에서 “희생 제물과 예물과 번제물과 속죄제물은 주님께서 원하지도 않으시고 기뻐하지도 않으십니다.”라고 하셨습니다(이것들은 율법에 따라 드러지는 것입니다). ⁽⁹⁾ 그 후에 그리스도는 “보십시오, 제가 주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께서 첫 번째 것을 폐지하시는 것은 두 번째 것을 세우시기 위한 것입니다. ⁽¹⁰⁾ 이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한 번 만에 영원히 드러짐으로써,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히 11:5-6] 에녹은 믿음으로,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옮겨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옮겨 가셨으므로, 그는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에녹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렸다는 증거를 지녔습니다. ⁽⁶⁾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은 반드시 ‘그분께서 -이시다’라는 것과 그분은 그분 자신을 부지런히 찾는 사람들에게 보상을 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사 22:20-25] “그날에 / 나는 힐기야의 아들인 나의 종 엘리야김을 불러 ⁽²¹⁾ 너의 관복을 그에게 입히고 / 너의 허리띠를 그에게 매어 주며 / 너의 통치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 그가 예루살렘 주민들과 / 유다 집의 아버지가 되리라. ⁽²²⁾ 그리고 다윗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 위에 두리니 / 그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 그가 닫으면 열 사람이 없으리라. ⁽²³⁾ 단단한 곳에 박힌 못처럼 나는 그를 박으리니 / 그가 자기 아버지의 집을 위해 영광의 보좌가 되리라. ⁽²⁴⁾ 그러면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곧 자식과 자손, 대접에서 온갖 향아리에 이르기까지 온갖 작은 그릇이 그의 위에 걸릴 것이다. ⁽²⁵⁾ 만군의 여호와와 선포이다. ‘그날에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빠지고 심지어 잘리며 떨어질 것이다. 그러면 그 위에 걸려 있던 것도 깨질 것이다.’ 이는 여호와가 말하였기 때문이다.”

- c.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를 ‘고용하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십자가에 두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으셨을 때, 우리를 ‘해고하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게 하셨을 때, 우리를 하나님-사람들이라는 새로운 종(種), 곧 하나님의 단체적인 걸작품인 하나님의 새로운 발명품으로 만드심으로써 우리를 ‘재고용하시어’, 그분의 영광 곧 그분의 단체적인 표현을 위해,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의 원래의 의도로 우리를 되돌리셨다 — 창 1:26, 고전 11:7 상, 갈 2:20, 엡 2:6, 10, 15, 사 43:7.

[창 1:26]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듭시다. 그리고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 위를 기어 다니는 온갖 기는 것을 통치하게 합시다.”

[고전 11:7]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므로 자기의 머리를 덮개로 가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여자는 남자의 영광입니다.

[갈 2:20]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이제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생명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생명입니다.

[엡 2:6] 그분과 함께 일으키셨으며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분과 함께 하늘들의 영역 안에 앉히셨습니다.

[엡 2:10]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들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이 선한 일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것으로, 우리가 그것들을 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엡 2:15] 규례들로 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 안에서 없애 버리셨습니다. 이것은 이 둘을 그분 자신 안에서 한 새사람으로 창조하시어 화평을 이루시려는 것이며,

[사 43:7]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이들을 / 내가 창조하고 지었으며 심지어 내 영광을 위해 만든 이들을.

- d. 참된 교회 생활은 모든 지체들이 해고되고 그리스도로 대체됨으로써, 삼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새사람의 실재인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를 모든 것이 되게 하는 것이다 — 골 3:10-11, 고전 10:31.

[골 3:10-11] 새사람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이 새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에 따라 온전한 지식에 이르도록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¹¹⁾ 거기에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례자와 무할례자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노예나, 자유인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이시며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고전 10:31] 그러므로 여러분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2. 신약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체하시는 것은 전적으로 접붙여진 생명의 문제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결되었고, 이러한 연결 안에서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체하신다. 대체는 연결을 요구하는 반면, 교환은 그리스도와의 연결(요 15:4-5)을 폐한다. 그리스도께서 그분 자신을 우리와 결합시키시고 우리와 연결시키셨으므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우리도 그분과 함께 죽고 종결되었다(롬 11:17, 24, 6:6).

[요 15:4-5] 내 안에 거하십시오. 그러면 나도 여러분 안에 거하겠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도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⁶⁾ 나는 포도나무요, 여러분은 가지들입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떠나서는 여러분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롬 11:17] 그러나 몇몇 가지들이 꺾어졌고, 야생올리브나무인 그대가 꺾어진 가지들 자리에 접붙여져서 올리브나무의 기름진 뿌리에 함께 참여하게 되었다면,

[롬 11:24] 그대가 원래의 야생올리브나무에서 잘라져 본성을 거슬러 참올리브나무에 접붙여졌다면, 원래의 가지들인 이 사람들이야 자기 올리브나무에 얼마나 더 잘 접붙여지겠습니까!

[롬 6:6]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무력하게 되어 우리가 더 이상 죄의 노예로서 섬기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

3.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었으므로,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우리에게 의해, 우리를 통해 사심으로 우리를 대체하신다. 우리가 살지만, 우리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사시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에 의해 산다. 이것은 그리스도와의 유기적인 연결을 가리킨다 — 갈 2:20, 빌 1:19-21 상.

[갈 2:20]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이제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생명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생명입니다.

[빌 1:19-21] 왜냐하면 여러분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넘치는 공급으로, 이러한 일이 결국에는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을 나는 알기 때문입니다. ⁽²⁰⁾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어떤 일에서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항상 그러하였듯이 지금도 매사에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확대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²¹⁾ 왜냐하면 나에게 있어서 삶은 그리스도이고, 나에게 있어서 죽음은 유익이기 때문입니다.

- C. 하나님의 부름에 합당한 행함의 셋째 항목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실재대로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이다. ‘예수님 안에 있는 실재’는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일생의 실지 상태이다 — 엡 4:20-24.

[엡 4:20-24]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²¹⁾ 여러분이 참으로 그리스도에게서 들었고 예수님 안에 있는 실재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면, ⁽²²⁾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을 따르는 옛사람, 곧 그 속이는 것의 욕정에 따라 썩어 없어져 가는 옛사람을 벗어 버린 것이며, ⁽²³⁾ 또한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되어 ⁽²⁴⁾ 새사람, 곧 하나님을 따라 그 실재의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사람을 입은 것입니다.

1. 요한복음 6장 57 절은 예수님 안에 있는 실재, 곧 예수님의 하나님-사람 생활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 곧 예수님의 하나님-사람 생활의 복사판인 새사람의 단체적인 하나님-사람 생활이 되는가를 계시한다. 하나님께서 주 예수님을 보내시어 사람이 되게 하신 목적은 주 예수님께서 신성한 생명에 의해 하나님-사람의 생활을 살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종류의 생활은 그분과 정확히 똑같은 우주적이며 위대한 한 사람, 곧 신성한 생명에 의해 하나님-사람의 생활을 하는 한 사람을 산출한다.

[요 6: 57] 살아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셔서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입니다.

2. 요한복음 6장 57 절은 “살아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셔서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입니다.”라고 말한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 그리스도의 몸의 많은 지체들의 단체적인 하나님-사람 생활이며, 그들은 예수님 안에 있는 실재대로 그리스도를 배우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다.

[요 6: 57] 살아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셔서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입니다.

3.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도구로 취하여 그리스도에 ‘의해’ 사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활의 공급 요인으로 취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다. 우리의 음식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려면 우리는 반드시 그분을 먹어야 한다. 그럴 때 그분은 공급하고 힘을 주는 요인으로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하여 사심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인 그분의 몸을 건축하신다 — 요 6:63, 렘 15:16, 롬 8:2, 12:1-2.

[요 6:63] 생명을 주시는 분은 그 영이십니다. 육체는 무익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한 말이 영이요 생명입니다.

[렘 15:16] 주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제가 그것을 먹었더니 / 주님의 말씀이 제게 / 마음의 즐거움과 기쁨이 되었습니다. / 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 / 이는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까닭입니다.

[롬 8:2] 왜냐하면 생명의 영의 법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였기 때문입니다.

[롬 12:1-2] 그러므로 형제님들, 내가 하나님의 자비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권유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거룩하고 살아 있는 희생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의 합리적인 봉사입니다. ⁽²⁾ 여러분은 이 시대를 본받지 마십시오. 오직 여러분은 생각이 새로워짐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선한 뜻,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 D. 하나님의 부름에 합당한 행함의 넷째 항목은 우리가 사랑과 빛 안에서 사는 것이다 — 엡 5:2, 8.

[엡 5:2]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시어, 달콤한 향기가 나는 예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것처럼, 여러분도 사랑 안에서 행하십시오.

[엡 5:8]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들답게 행하십시오.

1. 우리는 신성한 본성에 동참하는 이들 곧 신성한 본성을 누리는 이들이 되어야 한다(벧후 1:4). 신성한 본성은 하나님의 어떠한이다. 하나님은 영이시고(요 4:24), 사랑이시며(요일 4:8, 16), 빛이시다(1:5). 영은 하나님의 위격의 본성이고,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의 본성이며, 빛은 하나님의 표현의 본성이다. [벧후 1:4] 그분은 이 영광과 미덕을 통하여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이 약속들을 통하여, 세상에서 정욕으로 부패되는 데서 벗어나, 신성한 본성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요 4:24] 하나님은 영이시니, 경배하는 사람들은 영 안에서 진실함으로 경배해야 합니다.” [요일 4:8]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요일 4:16]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해 가지신 사랑을 알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거하십니다. [요일 1:5] 우리가 그분께 듣고서 여러분에게 전해 주는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은 빛이시며, 그분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2. 우리 모두는 주님과 개인의 시간을 충분히 갖고서 우리의 영 안에서 주님과 내밀하게 교통해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사랑의 본질로 채워짐으로써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을 목양하실 수 있고, 주님의 빛나는 요소로 채워짐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볼 수 있게 된다 — 요 4:24, 눅 15:20, 마 5:15-16. [요 4:24] 하나님은 영이시니, 경배하는 사람들은 영 안에서 진실함으로 경배해야 합니다.” [눅 15:20] 그리고 일어나서 자기 아버지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서 목을 끌어안고 다정하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마 5:15-16]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잔대 위에 둬므로, 그것이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비춥니다. ⁽¹⁶⁾ 이와 같이 여러분의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여러분의 좋은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여러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십시오.
- E. 하나님의 부름에 합당한 행함의 다섯째 항목은 우리가 영 안에서 충만해져 그리스도를 넘쳐흐르게 하는 생활을 하는 것이다 — 엡 5:18.
- [엡 5:18] 술 취하지 마십시오. 술 취하는 것은 사람을 방탕하게 합니다. 다만 영 안에서 충만해지십시오.
1. 말하고, 노래하고, 시를 읊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는 것은 영 안에 충만한 것의 흘러 나감일 뿐 아니라 영 안에서 충만해지는 길이다 — 엡 5:19-21. [엡 5:19-21] 이를 위해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로 서로 화답하고, 여러분의 마음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시를 읊고, ⁽²⁰⁾ 항상 모든 일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우리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감사하며, ⁽²¹⁾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십시오.

 2. 영 안에서 충만해지는 것은 그리스도의 풍성으로 가득 채워져 그리스도의 충만, 그리스도의 넘쳐흐름이 되는 것이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의 말씀을 기도로 읽음으로써 우리는 그분을 은혜 위에 은혜로 계속 받아들여 그분의 충만, 그분의 넘쳐흐름이 될 수 있다 — 엡 3:8, 1:23, 3:19 하, 롬 10:12-13, 엡 6:17-18, 요 1:16. [엡 3:8]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 중에 가장 작은 이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을 이방인들에게 복음으로 전하게 하시고 [엡 1:23]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입니다. [엡 3:19]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이 있게 하시어, 하나님의 모든 충만에 이르도록 여러분이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롬 10:12-13]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분 주님께서 모든 사람의 주님이 되시고, 그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하시기 때문이니, ⁽¹³⁾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엡 6:17-18] 그리고 온갖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구원의 투구와 그 영의 검을 받아들이십시오. 그 영은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¹⁸⁾ 항상 영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힘을 다해 늘 깨어 있으며, 모든 성도들을 두고 간구하십시오.

[요 1:16] 우리가 다 그분의 충만에서 받았으니, 은혜 위에 은혜였다.

3. 우리는 영 안에서 항상 기도함으로써 영 안에서 충만해지는 생활을 할 수 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만족을 위한 그분의 신부가 되고 원수를 패배시키는 그분의 전사가 될 것이다 — 엡 5:18, 25-27, 6:10, 17-18.

[엡 5:18] 술 취하지 마십시오. 술 취하는 것은 사람을 방탕하게 합니다. 다만 영 안에서 충만해지십시오.

[엡 5:25-27] 남편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과 같이,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²⁶⁾ 이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말씀 안에 있는 씻는 물로 교회를 깨끗이 하여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며, ⁽²⁷⁾ 또한 접이나 주름이나 그 같은 것들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 앞에 세우시려는 것이며,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엡 6:10]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주님 안에서, 그리고 그분의 강한 권능 안에서 굳세어지도록 하십시오.

[엡 6:17-18] 그리고 온갖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구원의 투구와 그 영의 검을 받아들이십시오. 그 영은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¹⁸⁾ 항상 영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힘을 다해 늘 깨어 있으며, 모든 성도들을 두고 간구하십시오.